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19년 6월

휴먼러니짐

참가안내

[심리] 내 마음이 들리니?

★ 사람과 사람이 만나 우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철학]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멀어져 버린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한 인문학의 목소리

[미디어] BLACK MIRROR: 거울 혹은 블랙홀

★ 뇌를 마사지하고 몸을 지배하여 삶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미디어,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활용하기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19년 6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심리 20만원(10강), 중등부 철학 20만원(10강), 고등부 미디어 20만원(10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8월 마지막 주(25일)까지 강의 예정이며 기간 중 각각 2~3주의 휴강이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심리 초등

내 마음이 들리니?(10강)

★ 사람과 사람이 만나 우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6월 2일~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이 세상에 친구 하나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너와 내가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관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부서지기도 합니다. 친구와 사소한 다툼으로 마음이 상해 다시는 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요.

관계를 잘 보살피는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지요. 에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연습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렇듯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모두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 그 첫 번째 연습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우선 내 마음을 마주 보는 것부터 해봐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의 감정을 잘 살필 수 있다면 금세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하지 않을까요?

.....

1강_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면

수줍음 많은 친구가 배시시 웃으며 나를 쳐다볼 때, 엄마가 쿵쿵 커다란 발소리를 내며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물건을 고장 낸 동생이 후다닥 내 앞에 과자를 두고 말없이 도망갈 때,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간순간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 누군가 보내는 마음의 신호를 항상 놓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똑똑하지만 내 마음을 항상 몰라주는 친구, 조금 바보 같아도 내 맘을 너무 잘 알아주는 친구, 둘 중 당신은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나요? 두 번째 친구가 되고 싶다면 마음의 신호를 읽는 훈련을 함께 해봅시다!

2강_ 인사이드 아웃 :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애니메이션『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 라일리는 갑작스러운 이사와 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마음속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요! 시도 때도 없이 슬픔이가 나서서 전학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게 하질 않나, 고이 간직해온 성격 섬이 와르르 무너지질 않나! 사람의 마음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마냥 단순하지는 않아서 우리의 마음 역시 언제나 여러 가지 감정으로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이라 할지도 자기 마음에 신경을 안 쓸 때도 많아요. 라일리의 마음속 세계를 여행하며 그동안 내버려 뒀던 내 마음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3강_ 나의 이름은 : 나만 아는 나의 모습 찾아보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도 이 말은 통한답니다. 그 사람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이 바깥에서 보는 나의 모습 말고, 내 속에 있는 나만 아는 나의 모습들을 꺼내 봅시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지가 점점 드러날 거예요.

4강_ 나의 역사를 찾아서 : 기억을 통한 내 마음 분석

어느 날 하늘에서 다 자란 채로 똑 떨어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전부 과거의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당신의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남들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내 안에서는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이걸 기억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기억도 있을 테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도 있을 거예요. 현재의 나를 알기 위해 과거의 기억에 숨어있는 감정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5강_ 서로서로 상담소에 어서 오세요! : 고민을 나누는 방법

자, 이제 과거의 기억을 뒤져본 뒤에는 현재의 나로 돌아와 봅시다. 요즘 당신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요? ‘왜 사람은 죽는 걸까?’ 이런 무거운 고민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일상적인 고민까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고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민도 많을 거예요.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남들에게 털어놓고 후련해지고 싶은 고민, 위로받고 싶은 고민을 꺼내서 나눠보기로 해요.

6강_ 내 마음에 숨겨진 작은 방 : 무의식이 뭘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방이에요. 그 방의 생각들은 조금 위험해서 함부로 나오지 못 하도록 문지기가 단단히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밖으로 나올 기회를 틈틈이 엿보고 있는 생각들은 문틈으로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생각들은 가끔 우리의 꿈속에서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곤 하지요. 하지만 이런 이상하고 위험한 생각들 역시 우리의 마음의 일부예요. 그 마음들을 너무 꺾꺾 눌러놓고 산다면 그 방에 갇힌 것들이 언젠가 ‘팡!’하고 폭발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한번 그 방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7강_ 초딩들의 전쟁 : 교실안의 권력관계

자, 내 마음의 곳곳을 잘 살펴보고 왔다면, 이제 주변 친구들과의 세상으로 시선을 넓혀봅시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을 먼저 볼까요? 우리 반에는 힘이 센 아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아이, 멀리하고 싶은 아이, 끼고 싶은 그룹, 사이가 애매한 친구,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머무를 곳을 찾아 헤매게 되지요. 주어진 교실에서 내가 있을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말이지요. 시험 점수보다도 교실 안에서 친구들 사이의 내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어른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8강_ 싸움의 기술 :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나랑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려 봅시다. 가장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절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친구가 떠오르나요. 그런 친구가 떠오른다면 아마 행복한 사람일 테고, 그런 친구를 아직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우리 사이가 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예요. 싸워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멀어지기도 하지요.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는 속 편한 소리는 이제 그만! 당장 벌어진 우리 사이를 메꿀 방법을 알고 싶은 당신이라면 함께 이야기 해봐요. 우리는 대체 왜 싸우게 된 걸까요?

9강_ 너와 나 사이의 우주 :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와 너무도 다른 너 사이에는 커다란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나랑 성격이 비슷한 친구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함께 하고 싶기에 우리는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기 위해 노력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다고 해도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너의 눈을 빌려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우주를 사이에 두고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0강_ 누구든 함께 떠나는 뱃놀이 : 신나는 여름 소풍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라는 그림책을 알고 있나요? 책 속에서 검피 아저씨는 작은 배를 가지고 뱃놀이를 떠나요. 소년·소녀, 양, 닭, 소, 개, 고양이, 토끼 등등 많은 동물이 아저씨에게 부탁하죠. ‘아저씨, 나도 그 배에 타도 되나요?’ 그럼 검피 아저씨는 ‘그러렴!’하고 흔쾌히 동물들을 태워요. 장난끼 많은 동물들의 소동 끝에 작은 배는 결국 뒤집어지고, 모두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지만,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햇빛에 몸을 말린 후 집으로 돌아가 다 함께 따뜻한 차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사이좋게 놀지요. 우리도 한 번 해봐요. 누구든 함께 떠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뱃놀이를 말이에요. ■

철학 중등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10강)

★ 멀어져 버린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한 인문학의 목소리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6월 2일~8월 25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 학년 교실은 짝과 말 트기부터 두근댁니다. 하나둘씩 무리 지어 가는 급우들을 보며 나 혼자만 외톨이로 남기라도 할까 봐 두 눈알은 이리저리 구룹니다. 해마다 치르는 이 의식이 “전쟁 같다…”는 탄식마저 들립니다. 차라리 방구석에 혼자 처박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인 척(톰 행크스)은 외로움에 떨다 배구공을 “월슨”이라 부르고, 그 공이 바닷물에 쓸려가 버리자 서럽게 읊니다. 정말 외딴 섬에 표류해 혼자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미쳐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현대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일그러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거나 서로를 구속하고 억압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관계 맺음이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버렸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두렵게 된 것일까요. 많은 것이 얽혀 복잡하게 꼬인 그 실타래를 조금씩 풀 수 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내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도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표류하는 우리의 관계는 어떤 바람을 타고 정착지를 찾을 수 있을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으로의 초대장을 여러분께 띄웁니다. 인문학이라는 미풍, 혹은 폭풍에 실어서.

.....

1강_ 토닥토닥 고민상담소 : 당신을 괴롭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 종종 우리는 그 섬을 발견합니다. 다다를 수 없을 것처럼 아득해서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서로가 그 등을 쓸어줄 테니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섬 따위는 없다고 외면해버리지 않는 용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래, 우리 괜찮지 않을까요.

2강_ 외계인이어도 괜찮아 :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힘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정상의 크기만큼 다른 이에게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글썄요, 혹시 그 이면에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강_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만들어진' 주제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이가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때로 서로에게 커다란 감정적 울림을 불러오곤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나를 부르는 이름에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4강_ 너 지금 제정신이니 : 괴물이 탄생하는 이유

뉴스를 보면 수많은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관계를 방해하는 괴물 같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괴물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영화 속 괴물과는 다르게 슈퍼히어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5강_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 학습된 복종 사회

한국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복종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수직적 관계는 사람 간의 소통과 공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니다. 왜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복종을 학습시키는 것일까요. 나름의 논리로 자신을 변호하는 복종사회에 카운터펀치를 먹여봅시다.

6강_ 다시 쓰는 동물의 왕국 : 약육강식의 진실

어른들은 이 사회를 동물의 세계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간사회도 근본적으로는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앞에 앉아있는 친구도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이겨야 할 대상일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약육강식의 논리를 극복해야 할까요.

7강_ 내가 너보다 더 세거든 :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기동찬 방법

룰. 1> 반경 10km의 무인도에서 기관총, 단검, 낫 등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죽여야 함. 2> 목에 장착된 목걸이를 통해 중앙통제소에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며, 역지로 풀려고 하거나 수상한 짓을 하면 목걸이는 자동폭발. 3> 시간이 지날수록 제한구역을 늘리며 제한구역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목걸이는 자동폭발. 4> 제한 시간은 3일, 오직 한 사람만이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며, 만약 3일이 지난 후에도 우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살.

8강_ 내 곁에 있어 줄 건가요 : 사랑과 애착이라는 DNA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과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찌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현재가 과거에서 이어지듯 현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우리에게겐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요.

9강_ 마음속 디펜스 게임 : 방어의 심리학

병균이 침투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몸 안의 면역체계처럼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그 가면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기는커녕 상처를 더 벌어지고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10강_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 우리가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쉽게 서로에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분노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사이에 놓인 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각자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주세요.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고등

BLACK MIRROR: 거울 혹은 블랙홀(10강)

★ 뇌를 마사지하고 몸을 지배하여 삶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미디어,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활용하기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6월 9일~8월 25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그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랑의 빠진 대중들은 미디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윽고 꺼진 미디어의 검은 창 안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어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입니다.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껴안을 수 있는 품이 있다면 깎지킬 수 있는 손가락만 있다면 미디어에 대한 사랑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강_ Ghost in the net : 미디어와 권력

잘 나가는 무당의 확신에 찬 목소리의 배후는 무엇일까요? 그 강렬한 목소리가 자신을 돌봐주는 귀신에 대한 믿음이라면 차라리 귀여울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알려서 한 몫 잡아보겠다는 욕망이라면 더 무시무시하진 않을까요? 무당은 영어로 'medium'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medium'은 'media'의 단수형입니다. 미디어의 배후에는 어떤 신이 버티고 있을까요?

2강_ 미디어는 마사지다

학생, 엄마, 교사, 유재석, 김연아, 문재인... 미디어는 신문, TV, 인터넷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어떤 미디어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미디어는 아닌가요? 당신은 왜 그런 미디어가 되었을까요? 당신보다 힘이 센 어떤 다른 미디어가 당신이란 미디어를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은 아닐까요?

“미디어 즉 폭력이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메신저가 된다. 이미지의 폭력은 바로 그 폭력을 매개체(미디어)로 해서 실재를 사라지게 만든다.”

당신은 어떤 미디어 혹은 어떤 폭력인가요?

3강_ 미디어는 모든 것을 삼킨다 : 미디어 비판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비판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비판 역시 미디어를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디어는 그것이 자신의 덩치를 불리는 일이라면 자신에 대한 비판마저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미디어는 두려워하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무자비한 비판의 채찍에도 몸서리치며 즐거워하는, 미디어는 최강의 사디스트입니다.

4강_ 미디어는 메시지다

흑백 사진으로 찍은 나와 칼라 사진으로 찍은 나는 왜 다른 분위기를 낼까요? 스틸 사진과 보정된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자신의 진짜 모습에 가까울까요? CCTV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뉴스카메라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어떤 느낌인가요? 어쩌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미디어 자체가 이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엄마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 다 잔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도 어쩌면 무언가를 표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메시지인 지도 모릅니다.

5강_ 거울 나라의 나르시스 : 미디어, 인간 신체의 확장

나르시스는 몰랐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모습이 확장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 모습에 중독되어 하릴없이 바라보면서도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숲속의 요정 에코는 나르시스의 탄식을 반복해서 울려퍼졌지만 나르시스는 그것이 자기 목소리의 확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나르시스는 감각이 마비된 채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6강_ 소녀상 아래서 브런치를 : SNS 시대의 미디어

얼굴책은 멈출 수 없는 성형이며 완성되지 않을 책임입니다. 얼굴책은 보통의 책 같은 이야기의 흐름이나 인과관계가 쓸모없어진 책임입니다. 그저 나열의 질서만 있을 뿐입니다.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 아래에 비싸고 예쁜 브런치 접시가 놓여있기도 하고, 아기의 귀여운 재롱 영상 위로 야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온갖 정치적 선동과 문화적 도피가 섞여있는 그 책에 당신이 남기는 메시지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7강_ 피핑 톰은 반드시... : 미디어는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알몸으로 영지를 돌던 영주 부인 고다이바를 훔쳐봤던 재단사 톰은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한 사람들은 훔쳐보는 톰(peeping Tom)을 관음증의 다른 이름으로 불러냈습니다. 역사적 변태가 된 톰은 그러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알까요? 피핑 톰은 반드시 눈이 먼다는 것을...

8강_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 상업광고의 미학

시대는 언제나 인간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기 적절한 껍데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애국자? 효자? 이기주의자? 물론 이런 것들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면서도 강력한 틀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특히 소비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덧씌우려는 가장 중요한 외피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소비자로 거듭(?) 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교육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냥 그대로 두기만 해도 됩니다. 물건을 팔고 싶은 기업들이 인간들에게 주문을 외우는 일을 알아서 맡아주니까요.

9강_ 뽀로로는 힘이 세다 : 캐릭터 이미지로 본 미디어의 힘

한국 사회의 모든 아가들은 뽀로로의 보살핌 속에 자랍니다. 울어도 뽀로로, 시끄러워도 뽀로로, 귀찮아도 뽀로로, TV뽀로로는 엄마보다 다정하고 아빠보다 친근합니다. 하지만 뽀로로는 어머니나 아버지, 그 어떤 어른들보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뽀로로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의 아버들이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벌어도 모을 수 없습니다. 뽀로로는 힘이 셉니다.

10강_ 산타는 코카콜라를 마신다 : 미디어와 상징자본

여러분은 아마 아무도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유치원 주차장에서 수영을 떼어내고 담배를 피우는 빨간 옷의 아저씨를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타가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일곱 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진실일까요? 현명한 어른들은 산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타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6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